

# 도교육청, 진안군과 교육협력 '맞손'

농촌유학·방과후학교 운영 등 현안에 협력

전춘성 군수 "교육 혜택 못받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

서거석 교육감 "아이들이 꿈 키우도록 최선"

서거석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위기를 해소하고자 도내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에 분주하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지역을 살리는 등 교육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거석 교육감과 전춘성 군수는 15일 진안군청 군수실에서 김호경 진안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임진숙 진안군 농촌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협력 전담 부서를 두고 농촌유학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 현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학령 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 지역소멸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위치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서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서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전북도,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전북교육청, 진안군, 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무주군, 임실군, 정읍시 등 도내 8개 시·군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9번째다.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남은 5개 시·군과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은 경제 등 모든 게 다 어렵지만,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전북교육청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교育청과 교육지원청이 진안군과 손을 잡고 진안 교육을 활성화 해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과 전춘성 군수는 15일 진안군청 군수실에서 김호경 진안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임진숙 진안군 농촌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 "진안, 환경·교육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최적지"

진안군의회, 서거석 교육감과 지역 교육현안 해결 의견 교환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와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진안군의회 의원들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물꼬를 뚫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 함께한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전년 대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15% 확대하고, 농촌유학생 통학버스비 지원과 장학금 지급하는 등 질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진안지역민의 치열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

청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율 부의장은 "국립 지역관선픈 치유원, 전북권환경성질환치료센터와 아토피 안심학교인 조림초등학교가 있는 진인이야 말로 농촌유학의 최적지"라며 "아토피 안심학교를 특수학교 및 중학교 까지 확대시켜 '아토피 치유 거점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규 의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이아키우기 좋은 진안' 아이들이 행복한 진안' 만들 수 있도록 교육 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규 의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이아키우기 좋은 진안' 아이들이 행복한 진안' 만들 수 있도록 교육 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서 교육감, 진안 학부모들과 소통 나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주제 학부모 특강

학력 신장·학교 통합 등 질의의 이어져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5일 진안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을 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교육감은 이날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경)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서교육감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소개하고 △ 학력 신장 △수업 혁신 △비른 인성 교육 △미래교육 △학생 해외연수 등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학부모들은 학력 신장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을 묻는 등 이날 특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학력 신장을 강조하였는데, 임기 내 구체적인 목표는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이후에 진행되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 후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교육감은 학부모 특강에 앞서 진안군청을 방문해 전춘성 진안군수와 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환경·생태교육 확대,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및 정보교육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통합 관련 질의에는 "통합 후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폐적인 환경 속에서 학력과 다른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교육감의 학부모 특강은 학력 신장과 수업 혁신, 미래교육 등을 해 주진 할 핵심과제의 정책 방향을 알리면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교육감은 학부모 특강에 앞서 진안군청을 방문해 전춘성 진안군수와 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오늘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일반고 지원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2층 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일반고 지원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이를 사전에 안내, 학교의 운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올해 특성화고로 전환되거나 일반고 계체의 2·3학년 재학생을 둔 원광정보고등학교를 포함해 도내 97개 일반고 교장(감) 및 업무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교과과정 안내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지원 방향과 추진 과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계획 등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주현화 과장은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내실화,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STEAM 수업지원단

### 20일 모집… 초중고 교사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사를 대상으로 STEAM(융합교육) 수업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업지원단은 초등·중등 교원 중 STEAM 지도 역량을 갖춘 전문 교원의 신청을 받아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소양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수업지원단은 도내 STEAM 선도학교, 학교 내 무한 상상실, STEAM 교사 연구회 교실 STEAM 수업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STEAM 수업 자료 개발, 공개 수업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이강 과장은 "STEAM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며 "수업지원단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STEAM 수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남원교육문화회관

### 지도강사 공개 모집

남원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기)은 2023년도 학생·평생교육·독서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도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교육은 '동화책 상상놀이터'와 운봉분관 '상상력 공예' 등 33개, 평생 교육은 '한지공예'와 운봉분관 '서양화' 등 23개, 독서동아리 '포함한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원자격은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및 학위소지자로서 관련 강좌 경력이 있거나 대회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 회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강사지원서, 강의계획서 등을 작성해 교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인 2개 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한 사람들은 회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교육문화회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15일 전주대학교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학사모를 쓴 졸업생과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길"

### 전주대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

학사 1967명, 석·박사 164명 학위 수여

인었다.

한편 학위수여식장에는 전주대학교 캐릭터 제이제이도 학위복을 입고 깜짝 등장해 학생들과 포토 타임을 갖고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각 단과대학은 학위수여식 기간 일주일 동안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스타센터 포토존에서 캠퍼스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차진아 교무처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학위수여식을 통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주대학교를 떠나는 수퍼스타들이 지역과 사회를 이끄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15일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도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

### 제도 개선안 인사자문위 등 통해 최종안 확정 상반기 행정예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역 간 균무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학교의 균무 기피현상을 해소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밟벗고 나섰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심있는 교원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 교원인사제도 TTF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인사제도 개선 설문지를 제작해 지난해 말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유·초등은 전체교원 8,539명 중 7,209명이 참여해 84.6% 참여율을, 중등은 전체교원 6,512명 중 2,382명이 참여해 36.6%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원이 유·초등은 37.2%, 중등은 45.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승진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초등은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구조별 균무경력 가산점, 농어촌 가산점, 영어능력 승진가산점, 담임경력 승진가산점, 교감 자격증

나갔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